

The Effects of Career Barriers Perceived by Athletes on Career Resilience with the Mediating Role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¹⁾

Kim Hee Young (Korean Sport & Olympic Committee, Vocational Counselor)
Jin Sungmi²⁾ (Chung-Ang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barriers perceived by athletes and career resilience with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 questionnaire was distributed to athletes registered in the athlete registration system of the Korean Sport & Olympic Committee and 370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in the end.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correlation between all variables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 Career barriers showed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career resilience and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career resilience. Second, the direct effect of career barriers on career resilienc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r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barriers and career resilienc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howed an indirect effect, and it was verified that it had a partial mediating effect. The results of the study confirmed the importance of career resilience that athletes need to have in order to acquire new and challenging career competencies in a changing career environment, even though they decided their career path early. It was suggested that career guidance and support that can enhance self-efficacy are needed.

Key Words : Athletes' career, career resilienc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barriers

1) This paper is revised based on the mater's theis of the first author.

2) Corresponding Author: Jin, Sungmi, Associate Professor, Chung-Ang University, 84 Heukseok-Ro, Dongjak-Gu, Seoul, Korea, 06974 / E-mail: sungmi@cau.ac.kr

운동선수가 지각한 진로장벽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경력탄력성에 미치는 영향¹⁾

김희영 (대한체육회, 직업상담사)
진성미²⁾ (중앙대학교, 부교수)

< 요약 >

이 연구의 목적은 운동선수가 지각한 진로장벽이 경력탄력성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확인하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한체육회 선수등록시스템에 등록했던 선수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최종 370부의 설문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변인 간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진로장벽은 경력탄력성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경력탄력성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둘째, 진로장벽은 경력탄력성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셋째, 진로장벽과 경력탄력성 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간접효과를 보여 부분 매개효과를 보이고 있음을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는 이른 시기 진로를 결정하였지만 변화된 경력 환경에서 새로운 도전적인 경력 역할을 갖추기 위해서 운동선수들이 가져야 할 경력탄력성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이의 향상을 위해 진로 장벽에 대한 인식을 낮추고 진로에 대한 의사결정에 있어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진로지도 및 지원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 운동선수 경력, 경력탄력성, 진로장벽, 진로의사결정 자기효능감

1) 본 논문은 제1저자의 석사학위논문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2) 교신저자: 진성미, 부교수, (06974)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 84, 중앙대학교 / E-mail: sungmi@cau.ac.kr
논문투고일자: 2021. 8. 23 / 심사일자: 2021. 8. 25 / 게재확정일자: 2021. 9. 17

I. 서론

경력(career)은 개인의 생애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 일과 직업 경험의 총체(Greenhaus et al., 2010)이며, 이는 특정한 시기에 결정하고 선택하기보다는 개인의 삶과 직업 생활을 준비하고 적응해나가는 과정 전체를 포괄하는 것(Jeong & Jyung, 2015)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자신의 전문적 역량에 기초하여 비교적 이른 시기에 진로를 결정하고 그 분야의 전문성에 기초하여 경력을 개발해온 운동선수들의 경우에는 생애 과정을 통한 경력 개발에 있어 여러 도전들을 경험하게 된다(Martin et al., 2014; Park et al., 2013).

운동선수는 전직하거나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하는 일이나 학업에 집중하는 시기는 포괄 집단과 비교해 보았을 때 다소 다른 발달 단계를 경험한다(Chon & Choi, 2017). 그들은 선수 생활을 통해 전문 체육인의 경력을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은퇴 이후에 대한 준비가 어려운 상황이며, 은퇴 이후 새로운 경력을 시작하게 되더라도 준비 없이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Pearson & Petitpas, 1990). 운동선수들은 경기력 향상에만 초점을 두고 오랫동안 선수로서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은퇴라는 상황을 맞았을 때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지만, 혼란스러워하며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인식하게 된다(Kim & Chang, 2019). 그래서 선수로서의 경력이 아닌 새로운 분야로 경력 전환을 맞이하게 될 때보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고(Kim & Choi, 2020),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해 유연하게 극복할 줄 알고 잘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더욱 중요해진다.

근래 연구가 확장되고 있는 경력탄력성 개념은 예상하지 못한 직업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개인의 특질(London & Noe, 1997)로서, 새로운 진로로의 전환이나 적응에 있어 중요한 능력으로 간주된다. 한 분야에서 경력관리를 해왔던 운동선수가 여러 외부환경에 의해 경력 정체 및 중단이 되는 상황에 놓여 경력이 전환되는 경우 경력탄력성은 운동선수의 경력 발달과 전환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이러한 경력탄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선행 요인으로서 개인이 인식하는 진로장벽이 있다(Im & Lee, 2020). 진로장벽은 개인의 진로 발달 과정에 방해가 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개인 심리적인 요인이나 환경적인 요인과 배경들을 의미하며(Swanson & Witke, 1997), 운동선수가 인식하는 진로장벽은 여러 형태로 존재한다. 진로장벽 인식은 선수들의 진로 역량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부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오랜 시간 동안 선수로서 생활해오다가 은퇴 후 새로운 환경에서 직업 생활을 하는 은퇴선수에게는 새로운 진로에의 적응과 개발 과정을 방해하기도 한다.

운동선수가 지각하는 진로장벽은 학교생활 경험, 진로 효능감, 선수 정체성 등 여러 변인들과 관련이 있으며(Cox et al., 2009), 진로장벽은 개인의 진로준비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다수의 연구에서 보고된 바 있다(Cha & Lee, 2014; Jang & Song, 2015; Kim, 2016). 따라서 현역 선수로서의 성공적인 경력관리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은퇴선수들을 위해 그들이 인식하고 있는 진로장벽을 낮춰주는 것은 운동선수 경력 개발에 필수적이다.

Hackett & Betz(1981)는 Bandura(1997)의 자기효능감 이론에 진로발달이론을 접목시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개념을 제안하였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효율적인 진로 결정에 영향을 주어 개인이 진로 결정과 관련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느끼는 자신감의 정도를 말하며(Taylor & Betz, 1983), 선행연구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운동선수들의 은퇴 불안이나 운동 몰입(Jeon & Lee, 2020; Kim & Kim, 2018)과 관련한 연구를 포함해서 진로준비행동, 전공만족도, 진로발달, 진로결정수준들과 영향관계가 있음이 밝혀졌다.

그동안 운동선수의 진로와 관련한 다양한 실제적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대다수의 연구는 운동선수 일자리 창출(Lee & Cho, 2012), 은퇴선수 대상 지원센터 건립방안(Nam et al., 2012), 학습권 보장 및 전문성을 갖춘 진로상담사 보급(Kim, 2014) 등과 같이 선수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 방안에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운동선수 지원에 관한 연구들 또한 은퇴선수로 집중되어 있다(Kang & Kim, 2013; Park & Han, 2011). 하지만 운동선수의 진로를 전 생애적 관점에서 고찰한다면, 현역·은퇴선수를 구분하지 않고 운동선수에서 다른 직무, 전직했지만 이직이나 전직으로 경력을 전환하고자 하는 선수들을 포함하여 운동선수의 다양한 진로 생애를 고려한 연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경력을 전환하려는 현역 및 은퇴선수가 지각한 진로장벽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경력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한다. 현역 또는 은퇴선수가 지각한 진로장벽과 경력탄력성의 관계를 이해하고 그 관계에서 선수들의 진로 의사결정 자기효능감의 의미를 확인하는 것은 운동선수 경력개발을 위한 선수 지원 프로그램을 계획하는데 의의를 가질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진로장벽

진로장벽에 관심을 두고 연구를 시작했던 초기에는 통일된 용어로 사용되지 못하고 진로와 관련된 장벽 또는 지각된 장벽 등으로 사용하며 진로장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Jung & Ha, 2018). 하지만 Swanson & Tokar(1991a)의 연구를 통해서 진로장벽 검사(CBI: career barriers inventory)가 개발되고 다양한 연구들이 축적되면서 진로장벽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진로장벽의 변인은 심리적, 환경적 요인들로 정량적이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나 사건에 대한 사실보다 개인이 그 상황과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얼마나 어렵다고 인식하고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며 지각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것임을 의미한다(Seo & Lee, 2021). 따라서 진로장벽을 인식하고 있는 정도에 따라 개인의 진로 발달과 경력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에 진로장벽으로 인식되는 부정적인 요소는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다.

Fitzgerald et al.(1995)은 지각된 장벽으로 진로장벽을 설명하고 Luzzo(1997 August)는 진로와 관련한 장벽으로 정의하기도 하였다. 또한, 개인적이거나 환경적인 조건, 사건들이 개인의 진로발달과정에서 발달에 어려움을 갖도록 하는 것이 진로장벽이라고 정의되기도 하였다(Swanson & Woitke, 1997). London(1997)은 진로장벽에 대해 개인이 갖는 심리적인 요소와 정서적인 인지 여부가 다르며 그에 따라서 개인의 행동은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국내 연구에서 Lee(2006)는 진로 목표를 성취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방해되는 요인으로 인지하는 것이 진로장벽이라고 보았다. 진로장벽은 개인의 직업 혹은 진로계획을 방해하는 것으로 진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에서 경험을 해나가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방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부정적인 사건으로 간주된다(Lee, 2009). Song & Jeon(2013)의 연구에서는 진로와 관련된 진학이나 조직 내 승진, 회사 입사와 같은 경험들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개인의 진로결정이나 목표 등에 영향을 미치고 방해하는 부정적인 사태로 설명하였다.

또한, 진로장벽은 진로준비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미쳐 진로장벽을 높게 지각할수록 진로준비행동은 오히려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Jang & Song, 2015; Kim, 2016; Lee, 2017)들이 있었다. Lee & Choi(2020)는 진로장벽을 심리적·환경적 진로장벽으로 구분하여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했는데 심리적 진로장벽은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환경적 진로장벽은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고하였고, Cha & Lee(2014)의 연구에서는 심리적 진로장벽, 환경적 진로장벽 모두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부적 영향력을 보였다.

진로장벽을 높게 인지하는 학생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태도성숙도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실제로 진로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못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Youn & Choi, 2020). Bang & Kim(2017)의 연구에서는 취업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진로장벽이 영향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진로장벽 중 부족한 자기 이해와 외적장벽이 다른 하위 요인보다 자신의 취업 스트레스를 높이고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 또한, 체육계열 여대생의

경우 진로장벽은 진로준비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Hong & You, 2020), 운동선수, 체육계열, 일반계열 대학생들과 비교한 Kang(2015)의 연구에서는 대학 운동선수가 체육 및 일반계열의 대학생에 비해 진로장벽과 취업 스트레스 모두가 더 높았다.

진로장벽에 관한 측정도구는 Swanson & Tokar(1991b)의 연구를 통해서 CBI가 개발되어 총 18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국내에서는 진로발달 과정에서 과거 경험한 어려움, 향후 진로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해결해야 하는 것을 진로장벽으로 정의하고 진로 장애 탐색검사(Korean Career Barrier Inventory: KCBI) 척도를 개발하였다(Kim, 2001). 그리고 기존에 개발된 진로장벽의 척도를 심리적, 객관적 진로장벽으로 구분하여 보완하였다(Kim, 2007). 본 연구에서는 Choi & Min(2008)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를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란 자기효능감이 인간의 행동과 관련해서 심리적 변인을 다양하게 설명하고 예언할 때 유용하다는 것을 주목하여 자기효능감 이론을 진로분야에 적용하여 진로결정과 관련된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으로 정의하고 있다(Hackett & Betz, 198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개인에게 있어 진로결정, 학업목표와 성취, 진로행동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변인으로 설명하고 있으며(Lent et al., 1994), 자기효능감은 심리 내적 특성으로 진로발달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어 왔다.

진로와 관련된 분야에서도 자기효능감이 낮다면 진로를 결정하는 것에 직면하지 않고 주저하게 되는데 반대로 자기효능감이 높아지면 적극적으로 진로를 결정하게 된다(Taylor & Betz, 1983).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향후 진로와 관련된 결정이나 믿음과 연관되고, 이러한 신념이 높은 사람일수록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 주도적으로 행동하고 진행하려 한다(Chung, 2015). 따라서 자신의 행동이 이후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신념은 진로와 관련해서도 좋은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동기(Kim & Chang, 2019)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자기효능감이 낮은 수준이라고 해도 개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극복할 수 있고, 극복한다면 자기효능감이 향상된다고 보고한 연구(Cho et al., 2020)도 있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전공 또는 진로를 선택하는 것과 같은 진로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기도 한다(Lee, 2000). 또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태도성숙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으며(Duffy et al., 2013), 자신의 진로를 결정할 때 개인적 확신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으로서 갖는 소명과 자기애적인 성향, 진로태도 성숙과의 관계 연구에서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매개효과를 보여주었

다(Kim & Lee, 2012). 대학생의 소명과 진로태도성숙과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일 희망의 매개효과를 나타낸 연구에서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태도성숙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Park & Yoo, 2012). 또한, Ha(2018)의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정서지능과 사회적지지가 경력적응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가 증명되었다. 유도선수를 대상 연구(Nam et al., 2016)에서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향상되는 것은 진로와 관련하여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경험이 진로태도를 성숙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와 관련된 변인들과 강한 긍정적인 영향관계를 갖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진로 장벽을 인식하는 경우에 이 어려움을 딛고 경력에 대한 긍정적 노력과 태도를 유지하는 것에도 관계할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측정도구인 CDMSES는 총 50문항으로 진로선택 능력의 하위 요인을 미래 계획 설계, 목표 설정, 직업정보 수집, 자기평가 및 문제 해결 총 다섯 가지로 구성된다(Taylor & Betz, 1983). CDMSES-SF는 CDMSED가 25문항으로 자기평가, 정보 수집, 목표 설정, 진로계획, 문제 해결 다섯 가지 하위 요인으로 축소된 단축형 척도로 구성되었다(Betz et al., 1996). 자기평가는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을 수 있는 자신감으로 자신의 능력, 가치, 욕구 등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정보 수집은 자신이 흥미를 갖거나 관심을 두고 있는 직업을 찾아 그 직업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탐색할 수 있는 믿음 또는 자신감을 의미한다. 목표 설정은 진로와 학업에 있어 후회하지 않고 결정하는 자신감을 뜻하고 진로계획은 진학과 취업에 대해서 전략을 세우고 행동할 것으로 자신에 대해 믿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문제 해결은 진로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스스로 해결해나갈 수 있는 믿음을 의미한다(Kim et al., 2018).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타당한 측정도구로 인정받았고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CDMSES(Taylor & Betz, 1983)의 단축형인 CDMSES-SF(Betz et al., 1996)를 번안하여 사용한 Lee(2001)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를 활용하였으며, 하위 변인은 미래계획과 직업정보, 목표설정 및 문제해결, 자기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3. 경력탄력성

개인의 진로 동기(career motivation)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경력탄력성(career resilience) 개념이 구안된 것은 London(1983)에 의해서다. London(1983)은 경력탄력성을 “최적화되지 않은 환경에서의 경력 단절에 대한 개인의 저항(p. 621)”으로 정의하였으며, 경력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어려운 경력 상황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해갈 수 있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경력탄력성은 3개의 하위 영역, 자기효능감, 위험 감수, 의존성으로 구성된 다차원적 개념이다(London, 1983). 첫 번째 차원인 자기효능감에는 자존감, 자율 욕구, 적응력, 내부 통제, 성취 욕구, 주도성, 창의성 욕구, 내부 작업 표준 및 개발 지향의 차원을 포함한다. 두 번째 차원은 위험 감수로써, 여기에는 위험 감수 성향, 실패에 대한 두려움, 안전 욕구, 불확실성과 모호성에 대한 수용이 포함된다. 마지막 차원인 의존성은 경력 의존성, 상급자와 동료의 인정 욕구가 포함되며, 의존성의 다른 요소들과는 부적 관련이 있는 경쟁력도 포함된다. 자기효능감 및 위험 감수가 높고 의존성이 낮을수록 개인의 경력 탄력성은 높다고 볼 수 있다. 즉, 경력탄력성이 낮은 사람들은 위험을 피하고,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고, 구조를 추구하고, 조직 성과에 자신의 행동이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는 성향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경력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독립적이며, 자신만의 구조를 만들고, 결과가 자신의 행동에 달려 있는 상황에서 더욱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력탄력성 개념은 주로 조직에 기반한 개인의 경력 태도와 관련되며 실제 어려운 여건에서의 개인의 적응과 대응성을 의미한다.

이후 London & Mone(1987)의 연구에서도 경력탄력성은 경력개발 동기의 주요 요소 중 하나로, 어렵고 힘든 상황임에도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개인의 능력으로 정의되었다. 비슷한 맥락에서 국내에서는 Lim(2004)이 향후 진로 교육의 방향에 대한 논의에서 직업세계의 변화의 방향에 따라 진로개발 모형이 새롭게 구축되어야 하고, 이에 진로탄력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career resilience를 ‘진로탄력성’으로 사용하였다. 이후 진로 교육과 관련한 청소년과 대학생의 진로탄력성에 대한 연구들이 이후 꾸준히 이어져 왔다(Cho, 2020; Im & Lee, 2020).

한편 Gordon & Coscarelli(1996)는 탄력성에 심리적 영역과 환경적 영역을 포함하였다. 여기서 심리적 영역은 지능, 자발성, 양성성, 내적 통제, 대인관계능력 등을 의미하며, 환경적 영역은 스트레스원이나 장애물 제거, 지속적인 부정적 사건의 중지, 자아존중감 향상, 성공을 위한 대안 제공 등을 포함한다. 또한, Grzeda & Prince(1997)는 London(1983, 1993)의 진로동기모델, Noe et al.(1990)의 진로 동기 측정 도구의 내용을 통합하여 탄력성, 자기효능감, 위험감수성을 경력탄력성의 하위요소로 두었다. 이러한 개념들은 진로 동기모델에 파생된 London(1983)의 논의의 영향을 받으며 발전하였으며, 이후에는 그 하위요소로 자기에 대한 신념, 주관적 성공, 자립, 변화 수용성(Fourie & van Vuuren, 1998) 등이 도출되기도 하였다.

진로탄력성의 선행변인과 결과변인에 대한 메타분석을 실시한 Im & Lee(2020)는 그동안의 진로탄력성 연구들이 개인적 요소, 사회적 요소, 학습적 요소로 분류될 수 있다고 보고, 이전의 Kim(2014)의 연구에서 구분했던 개인적 요소, 직무적 요소, 사회적 요소에 덧붙여 태도와 행동을 포함하는 다각적인 개념으로 볼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였다. 경력탄력성에 영향

을 미치는 선행변인들로서는 대학생의 진로신념(Park & Kim, 2019), 부모의 지지(Im & Lee, 2020) 등을 포함하며, 진로장벽 인식은 경력탄력성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Lee, 2019).

Park & Jyung(2012)은 기존 도구들을 국내 맥락에 더 적합하도록 수정하여 대기업 사무직을 대상으로 한 경력탄력성 측정 도구를 개발하고, 선행연구 분석결과 경력 탄력성의 구성요소를 자기인식도, 위험감수성, 변화수용성, 자발성, 네트워크활용성, 기타의 6가지 유형으로 유목화하였다. 한편 Kim(2014)은 전문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력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하면서, 자기신뢰, 성취열망, 진로자립, 변화대처, 관계활용의 5가지 하위 요인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운동선수들의 경력 생애에서 새로운 경력개발 도전을 위해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태도와 능력으로서의 경력탄력성이 중요함을 고려하여, Park & Jyung(2012)이 개발하여 활용한 경력탄력성 도구를 사용하였다.

4. 변인 간 관계

진로장벽은 개인의 진로발달이나 경력개발과 관련하여 부적적인 영향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밝혀져 왔다. 진로장벽에 대한 인지가 강할수록 경력 주체는 미래에 대한 삶과 직업에 대해 긍정적인 사고와 태도를 갖지 못하게 되고, 이는 경력개발에 저해 요인이 된다. 특히 경력탄력성과 관련한 대부분의 연구는 경력탄력성보다는 진로탄력성의 개념으로 진로장벽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편이다.

Lee(2019)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이 지각하는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탄력성은 부분 매개효과가 나타났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대학생과 재취업 구직자 대상의 연구에서는 진로탄력성이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완전 매개효과를 보이기도 하였다(Cho, 2020; Cho & Yu, 2017; Kim, 2020).

진로장벽을 극복하는데 있어 경력탄력성은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음이 시사되었다. London(1983)이 제시한 진로장벽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체적인 행동임을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경력탄력성은 진로장벽을 해결하고 극복하는데 필요한 역량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진로장벽은 경력탄력성에 중요한 부적 선행요인임이 여러 연구들에서 밝혀진 바 있다.

진로장벽에 대한 인식은 진로선택에 대한 결정을 쉽게 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Lee & Jyung, 2007). 즉 진로를 선택하거나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개인은 진로장벽을 인식할수록 그 결정을 미루거나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다.

개인이 지각한 진로장벽은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효능감과 같은 변인이 매개하여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영향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Lent, et al., 2000). 개인이 인지하고 있는 진로장벽을 해결하거나 극복하려면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보다 높은 사람이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태도를 갖고 있다고 하였다(Bandura, 1997). 많은 연구에서 보고된 것처럼 진로장벽을 높게 인식하게 되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Jin & Chung, 2021; Lee & Kim, 2017).

대학 운동선수들의 진로장벽에 대해 연구한 Chung(2019)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진로장벽을 보고하였으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장벽과 진로발달 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부분매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검증되었고(Kim et al., 2018),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완전 매개 역할을 하는 결과(Kim & Park, 2013)도 보고되었다.

또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와 관련한 다른 변인들간의 관계에서도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소명과 진로 적응성 간의 관계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고(Shin, 2013),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 자율성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완전 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Lee & Park., 2019). 진로장벽과 진로발달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매개효과를 보고하였다(Chung, 2019). 이러한 연구들은 이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진로장벽과 경력탄력성간의 관계에서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매개 역할을 할 것임을 시사한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에서 주로 연구되어 왔으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경력탄력성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진로탄력성은 진로동기 모델에서 상황 조건과 서로 작용하여 개인의 진로결정과 행동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였다(London, 1983).

자아탄력성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간 관계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 변인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하위 요인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대학생들이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스트레스를 융통성 있게 반응할수록 진로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스스로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됨을 알 수 있다(Lim & Yoon, 2013). 진로를 결정하는데 요구받는 일련의 과제들을 잘할 수 있다고 인지하는 것은 변화하는 상황들을 유연하게 수용할 줄 아는 것이라는 점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경력탄력성 간의 정적인 영향 관계가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운동선수가 지각한 진로장벽이 경력탄력성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한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통해 연구 변인 간 구체적인 발현 기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한체육회 선수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편의표집하여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조사는 온·오프라인, 모바일 방식을 혼용하여 진행하였고, 불성실한 응답 및 응답 오류 자료를 제외한 최종 370부의 설문응답 자료가 통계분석을 위해 선정되었다. 해당 설문자료에 응답한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남성 220명(59.5%), 여성 150명(40.5%)이었고, 연령의 경우 20대 219명(59.2%), 30대 93명(25.1%), 40대 48명(13.0%), 50대 이상 10명(2.7%) 순으로 나타났다. 운동 종목의 경우 아이스하키 95명(25.7%), 스쿼시 71명(19.2%), 우슈 45명(12.2%), 육상 37명(10.0%), 야구 32명(8.6%), 사격 26명(7.0%), 조정 25명(6.8%), 골프 12명(3.2%) 등이 주요 응답으로 나타났다. 선수 경력 기간은 5년 이상-10년 미만 151명(40.8%), 10년 이상 15년 미만 113명(30.5%), 15년 이상 78명(21.1%), 5년 미만 28명(7.6%) 등이었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선정한 연구 변인을 측정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에서 이미 신뢰성과 타당성이 검증된 측정도구에 대하여 본 연구맥락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활용하였다. 인구통계학적 문항을 제외한 모든 문항에 대해 Likert 5점 척도 방식을 활용하여 측정을 시도하였다. 각 측정도구의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진로장벽의 경우 Choi & Min(2008), Lim(2020)의 연구에서 활용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해당 진로장벽 측정도구는 개인 정보적 장벽 6문항, 직업 부정적 장벽 2문항, 자아 부정적 장벽 2문항 등 3개의 하위 요인, 총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신뢰도의 경우 본 연구에서 Cronbach α 는 .935로 나타나 적절한 신뢰도 수준을 보였다.

다음으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Betz et al., 1996)이 개발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단축형 척도(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Short Form; CDMSES-SF)를 국내 실정에 맞게 번안하여 연구에 활용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Lee,

2001). 해당 측정도구는 자기평가, 직업정보수집, 목표설정, 진로계획, 문제해결 등 총 5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5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해당 척도를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 도출된 Cronbach α 는 .964로 나타나 적절한 신뢰도 수준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경력탄력성을 측정하고자 Park & Chung(2012)이 사용한 측정도구를 활용하였다. 해당 측정도구는 자기인식 4문항, 변용수용성 3문항, 위험감수성 4문항, 네트워킹 활용성 3문항 등 4개의 하위 요인 총 1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Cronbach α 의 경우 .938로 나타나 적절한 신뢰도 수준을 보였다.

3. 연구절차 및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설문응답 자료의 통계분석을 위하여 SPSS 25.0, AMOS 25.0을 사용하였다. 연구 절차별 적용된 연구방법 및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설문응답자의 연구변인에 대한 인식과 분포, 정규성 수준을 확인하고자 기술통계 분석을 수행하였다. 다음으로 각 변인에 대한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인하고자 확인적 요인분석에 기반한 측정모형 평가를 수행하였다. 타당도의 경우 판별타당도 검증은 추출된 분산 평균(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와 상관계수 비교검증법을 적용하였고(Fornell & Larcker, 1981), 수렴타당도의 경우 잠재변인과 측정변인 간 표준화요인적재치 크기를 확인하였다(Hair et al., 2018). 신뢰도의 경우 Cronbach α 와 합성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 CR)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각 변인 간 직접·간접효과를 실증하기 위하여 잠재변인 경로분석을 진행하였다. 특히, 매개효과 모수 및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해 Bootstrapping의 기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총 5,000회의 Bootstrapping을 통해 확인된 결과에 대해서 bias-corrected 95% 신뢰구간을 설정하고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변인의 측정을 모두 동일한 설문조사 방식을 활용하여 진행하였기 때문에, 동일한 측정방법에 기인하여 편의가 나타나는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였다. 이에 동일방법편의 문제의 검토를 위하여 Harman's single factor test를 실시한 결과 1개 요인의 총 분산 값이 44.599%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수치는 동일방법편의에 의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예측되는 판단 기준인 50%보다 (Roni, 2014) 낮은 것으로 확인되어 동일방법편의 문제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최종 판단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기술통계 분석결과

이 연구에서 연구 변인으로 선정한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경력탄력성에 대하여 설문응답자의 인식 수준과 분포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확인하였다. 각 변인의 평균은 2.104~3.999, 표준편차는 .746~1.007 범위에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각 변인의 다변량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일변량 왜도 및 첨도 절댓값을 살펴본 결과, 왜도는 최소 .50에서 최대 .583, 첨도는 최소 .151에서 최대 1.077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비정규성에 의한 문제 발생 가능성을 판단하는 왜도 3 이상, 첨도 10 이상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므로(Kline, 2010), 자료의 비정규성 문제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표 1> 참조).

<표 1> 기술통계 분석 결과

구분		<i>M</i>	<i>SD</i>	왜도	첨도
진로장벽	직업 부정적 장벽	2.514	1.007	.227	-.500
	개인 정보적 장벽	2.300	.954	.367	-.696
	자아 부정적 장벽	2.104	.954	.583	-.479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자기평가	3.782	.751	-.050	-.797
	직업정보수집	3.648	.788	-.100	-.209
	목표설정	3.728	.830	-.153	-.324
	진로계획	3.564	.882	-.120	-.514
경력탄력성	문제해결	3.626	.784	.101	-.151
	자기인식도	3.999	.746	-.152	-.946
	변용수용성	3.846	.758	-.131	-.654
	위험감수성	3.680	.792	-.093	-.153
	네트워킹활용성	3.914	.750	-.075	-1.077

2. 측정모형 평가

측정모형 평가는 변인 측정을 위해 사용된 측정지표가 구조방정식모형에서 구현되는 잠재변인을 충분히 대표하고 있는가 여부를 확인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먼저 타당도의 경우 판별타당도와 수렴타당도 양 차원에서 검증이 이루어졌다. 우선 판별타당도 검증을 위해 각 변인의 상관관계와 추출된 분산평균의 제곱근 값을 비교하였다. 만약 서로 다른 구성개념인

잠재변인 간의 상관관계수 크기보다 각 잠재변인에 속하는 측정변인의 설명력이 더 큰 경우 각 변인은 변별적으로 서로 다른 구성개념을 반영한다고 말할 수 있다. 다음 <표 2>는 각 변인의 상관행렬과 추출된분산평균 제곱근 값을 포함한 결과이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경우 진로장벽과 부적 상관관계($r=-.558$)를 보인 반면 경력탄력성과는 강한 정적 상관관계($r=.842$)를 나타냈다. 한편 진로장벽의 경우 경력탄력성과 강한 부적 상관관계($r=-.590$)을 나타냈다. 이러한 각 변인의 상관관계와 추출된분산평균 제곱근 값을 확인한 결과 각 변인의 상관관계보다 추출된분산평균 제곱근 값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모든 항목에서 판별타당도가 확보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2> 변인 간 상관관계 행렬 및 판별타당도 분석 결과

구분	AVE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장벽	경력탄력성
진로결정자기효능감	.733	(.856)		
진로장벽	.717	-.558	(.846)	
경력탄력성	.709	.842	-.590	(.842)

() : 추출된분산평균 제곱근(\sqrt{AVE}) 값을 의미함. 모든 상관계수는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다음으로 수렴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 잠재변인에 대한 관측변인의 표준화 요인적재치를 도출한 결과, 모든 관측변인은 해당 잠재변인에 표준화 요인적재량 .7 이상으로 높게 적재되었으며, 모두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Hair et al., 2018). 따라서 적절한 수렴타당도 수준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뢰도 수준을 파악하고자 잠재적인 변인에 대한 적재치 크기에 따른 상대적 가중치를 고려하는 합성신뢰도를 확인한 결과 모든 변인이 적절성 판단 기준인 .6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Gefen, 2003), 최종적으로 측정값에 대한 적절한 신뢰도 수준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 참조).

<표 3>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구분	표준화 적재치	임계비	Cronbach α	CR	
진로장벽	개인 정보적 장벽	.941	18.883***	.935	.883
	자아 부정적 장벽	.787	-		
	직업 부정적 장벽	.803	16.800***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목표설정	.905	20.165***	.964	.932
	문제해결	.783	16.605***		
	자기평가	.78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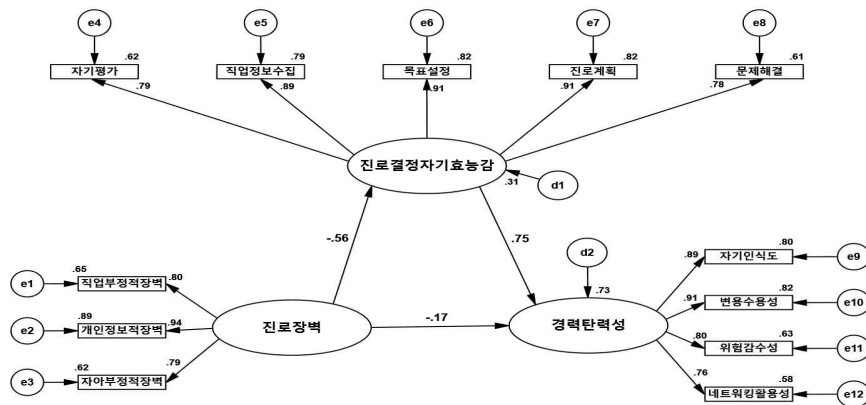
경력탄력성	직업정보수집	.891	19.742***	.938	.907
	진로계획	.907	20.231***		
	네트워킹활용성	.762	18.516***		
	변용수용성	.907	25.793***		
	위험감수성	.796	19.988***		
	자기인식도	.894	-		

*** $p < .001$

3. 구조모형 검증

구조모형 검증은 측정모형으로 검증된 잠재변인들 간의 경로에 대한 평가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하여 설정한 연구모형에 대한 모형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해 고려되는 주요 항목을 살펴본 결과 RMSEA .087, CFI .962, TLI .950, SRMR .039로 나타났다. 이는 모형의 수용조건을 충족시키는 결과이므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Kline, 2010)(그림 1] 참조).

다음으로 이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변인 간 영향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잠재변인 경로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먼저 진로장벽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 = -.438, \beta = -.558, p < .001$). 즉, 진로장벽에 대해서 인식하는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수준은 감소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경력탄력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B = .844, \beta = .747, p < .00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수준이 증가할 경우 경력탄력성 수준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마지막으로 진로장벽은 경력탄력성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영향을 미쳤으며($B = -.154, \beta = -.173, p < .001$), 따라서 진로장벽 인식 수준이 증가할수록 경력탄력성 수준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림 1] 구조모형 검증 결과

<표 4> 연구변인 간 영향관계 검증 결과

구분	비표준화 회귀계수	표준화 회귀계수	표준 오차	임계비
진로장벽 → 진로결정자기효능감	-.438	-.558	.045	-9.696***
진로결정자기효능감 → 경력탄력성	.844	.747	.061	13.752***
진로장벽 → 경력탄력성	-.154	-.173	.038	-4.026***

*** $p < .001$

각 변수 간 경로의 매개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증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진로장벽이 경력탄력성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beta = -.173, p < .001$), 진로장벽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통해 경력탄력성에 간접효과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beta = -.417, p < .001$), 진로장벽과 경력탄력성 영향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부분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진로장벽은 독립적으로 경력탄력성을 감소시키는 부적 영향을 미치며, 동시에 진로장벽이 해당 개인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감소시키면서 결국 경력탄력성을 저하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 5>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결과

구분	효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경력탄력성
진로장벽	직접효과	-.558***	-.173***
	간접효과	-	-.417***
	총효과	-.558***	-.590***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직접효과	-	.747***
	간접효과	-	-
	총효과	-	.747***

비고: Bootstrapping 5,000회, 추정치는 표준화회귀계수를 의미함.

*** $p < .001$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진로장벽을 운동선수가 지각하고 있는 진로 관련 어려움으로 보고 인식된 진로장벽이 선수들의 경력탄력성에 부적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고, 이 관계에서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연구의 논의점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력을 전환하고자 하는 운동선수가 지각한 진로장벽은 경력탄력성에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확인한 연구결과들과도 일치하는 결과였다(Cho,

2020; Cho & Yu, 2017; Kim, 2020). 이는 선수로서 생활을 하고 있어도 경기력이나 종목의 비활성화, 슬럼프 등 다양한 사유들로 선수 생활에 대해 회의를 느끼게 되는 경우나 다른 직무에서 적응이 어렵거나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는 상황들에 대해서 운동선수들은 경력전환에 대해 고민하게 되고 이는 곧 진로장벽을 인식하는 결과로 나타난다.

둘째, 운동선수가 지각한 진로장벽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부적 영향을 가진다. 운동선수들은 진로문제에 있어 어려움을 인식하게 되면 진로를 결정하는데 스스로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기 어렵게 한다. 또한, 운동선수들은 선수 생활이 길어질수록 역할이 명확히 제시되는 구조적 상황들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운동 이후의 경력을 탐색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진로장벽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두 변인 간의 관계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Jung, 2019); Kim et al., 2020)의 결과와도 같다.

셋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경력탄력성에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많은 선행연구들을 통해서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특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와 관련된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Lee, 2007; Lim et al., 201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아질수록 진로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자신감이 향상되고 진로선택의 범위가 확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Chung, 2007). 이 연구 결과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탄력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Park, 2018)와도 일치한다.

넷째, 진로장벽과 경력탄력성 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매개효과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자신의 진로와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고 설계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는 진로장벽을 인식하고 그로 인해 변화되는 환경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고 어려워하더라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높여줄 수 있다면 예상하지 못하는 경력 환경에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개인의 경력관리를 도울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 연구결과는 향후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 연구와 진로지도에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그동안 진로탄력성이나 경력탄력성 연구는 학생들이나 사무직, 직업훈련중인 성인들 대상으로 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직업 생애의 특징과 경력 환경에 따른 개인의 진로장벽인식, 경력탄력성 등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보다 다양한 직업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비교적 이른 시기에 전문적 역량개발을 위해 선수로서 직업생활을 시작한 경력 주체들이 은퇴 후, 혹은 현역 생활을 통해서 도전적인 경력 환경에서 어떻게 어려움을 인식하고 극복해갈 수 있는지 밝힐 수 있는 맥락적인 경력 탄력성 개념과 구성 요소 확인이 필요하다 하겠다.

둘째, 운동선수의 진로지도와 관련하여 운동선수들이 가지고 있거나 향후 갖게 될 수 있

는 진로장벽 인식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 개인의 진로가 전 생애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만큼 진로장벽의 인식 수준을 낮출 수 있다면 선수로서 은퇴 후 만족스러운 직업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전문 체육인으로 선수생활을 해온 많은 이들은 개인의 심리적인 문제나 구조적이고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개인의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해결하려는 특성이 강한 편이다. 따라서 진로장벽에 대한 인식이 높고 그로 인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경력탄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동료 선수배, 지도자, 학부모와 같은 주변 자원들이 선수들의 경력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교육이나 상담 프로그램들을 지원하는 것을 고려해 볼 것을 시사한다.

셋째, 운동선수들은 좋은 결과를 성취해내야 한다는 중압감이 크데, 압박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자신의 능력을 믿고 그 신념을 토대로 현재의 생활에 집중하는 것이다. 선수들의 직업생활에 있어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그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변화를 겪는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진로를 결정하는데 자신감을 갖도록 한다. 따라서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적극적 개입이 중요하다. 예컨대, 현재 대한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선수진로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프로그램에 집중되어 있으나 선수 개인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향상 내지는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직무 관련 체험 프로그램이나 스포츠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사회관계망을 확장시켜 줄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지원책이 될 것이다. 그리고 기관에서 학생선수로서 생활하는 시기에서부터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학생 선수의 심리지원이 가능한 스포츠심리상담사와의 주기적 상담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감독, 코치와 같은 지도자에 대한 지도 및 소통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 교육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W. H. Freeman and Company.
- Bang, H. S., & Kim, Y. H. (2017). The moderating effect of resili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barriers and employment stress. *Tourism Research*, 42(3), 111-140. <http://doi.org/10.32780/ktidoi.2017.42.3.111> 국문: 방한승, 김영현 (2017). 진로장벽이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에 대한 연구. *Tourism Research*, 42(3), 111-140.
- Betz, N. E., Klein, K. L., & Taylor, K. M. (1996). Evaluation of a short form of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4(1), 47-57. <http://doi.org/10.1177/106907279600400103>
- Cha, A. R., & Lee, H. K. (2014). The effect of psychological career barriers and environmental career barriers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Hope as a mediating variabl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5(1), 343-358. <http://doi.org/10.15703/kjc.15.1.201402.343> 국문: 차아름, 이희경(2014). 심리적 진로장벽, 환경적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희망을 매개변인으로. *상담학연구*, 15(1), 343-358.
- Cho, A. M. (2020). The effects of career resilience on career barrier,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career stress among the college students. *Journal of Future Oriented Youth Society*, 17(2), 93-114. 국문: 조아미(2020). 대학생의 진로탄력성이 진로장벽, 진로준비행동, 진로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미래청소년학회지*, 17(2), 93-114.
- Cho, H. J., Seo, B. R., & Lee, H. M. (2020). The mediated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in relation to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satisfaction in major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secretarial studies.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10(3), 1-21. <http://doi.org/10.35273/jec.2020.10.3.001> 국문: 조현정, 서보람, 이현민(2020). 전문대학 비서과 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전공만족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에 관한 탐색적 연구. *취업진로연구*, 10(3), 1-21.
- Cho, H. K., & Yu, K. L. (2017).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resilience between perceived career barrier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job seekers for re-employment.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36(6), 1-19. <http://doi.org/10.37210/JVER.2017.36.6.173> 국문: 조현경, 유금란(2017). 재취업구

- 직자의 진로장벽인식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탄력성의 매개효과. **직업교육연구**, 36(6), 1-19.
- Choi, S., & Min, G. J. (2008). Influence of barrier to course of life and ambition on decision level of life course of dance major students. *Resach of Dance Education*, 19(1), 123-137. ☞ 국문: 최선, 민경진(2008). 무용전공생의 진로결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진로장벽과 진로포부에 대한 실증적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지**, 19(1), 123-137.
- Chon, T. J., & Choi, J. S. (2017). Development of a career transition program for college student-athletes. *Journal of Wellness*, 12(3), 27-38. <http://doi.org/10.21097/ksw.2017.08.12.3.27> ☞ 국문: 전태준, 최재섭(2017). 대학 운동선수들을 위한 경력 개발 및 진로상담 프로그램 개발. **한국웰니스학회지**, 12(3), 27-38.
- Chung, J. E. (2019). The mediation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barriers and career development of college athlete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9(12), 451-473. <http://doi.org/10.22251/jlcci.2019.19.12.451> ☞ 국문: 정재은(2019). 대학 운동선수들이 지각한 진로장벽과 진로발달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2), 451-473.
- Chung, M. K. (2015). The mediation effect of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the relation of university's career barrier and career decision. *The Korea Educational Review*, 21(3), 85-106. ☞ 국문: 정미경 (2015). 대학생의 진로장벽과 진로결정 간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의 매개효과 분석. **한국교육학연구**, 21(3), 85-106.
- Chung, J. S. (2007). The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making.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12(1), 195-216. ☞ 국문: 정진선(2000).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과의 관계. **진로교육연구**, 12(1), 195-216.
- Cox, R. H., Sadberry, S., McGuire, R. T., & McBride, A. (2009). Predicting student athlete career situation awareness from college experiences. *Journal of Clinical Sport Psychology*, 2(2), 156-181. <http://doi.org/10.1123/jcsp.3.2.156>
- Duffy, R. D., Bott, E. M., Allan, B. A., & Torrey, C. L. (2013). Examining a model of life satisfaction among unemployed adul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0(1), 53-63. <http://doi.org/10.1037/a0030771>
- Fitzgerald, L. F., Fassinger, R. E., & Betz, N. E. (1995). Theoretical advances in the

- study of women's career development. In W. B. Walsh, & S. H. Osipow (Eds.), *Handbook of vocational psychology: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pp. 67-109). Erlbaum Associates.
- Fornell, C., & Larcker, D. F. (1981).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Algebra and statistic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3), 382-388. <http://doi.org/10.2307/3150980>
- Fourie, C., & Van Vuuren, L. J. (1998). Defining and measuring career resilience. *Journal of Industrial Psychology*, 24(3), 52-59. <https://doi.org/10.4102/sajip.v24i3.662>
- Gefen, D. (2003). Assessing unidimensionality through LISREL: An explanation and an example. *Communications of 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ystems*, 12(2), 23-47. <http://doi.org/10.17705/1CAIS.01202>
- Gordon, K. A., & Coscarelli, W. C. (1996). Recognizing and fostering resilience. *Performance Improvement*, 35(9), 14-17. <http://doi.org/10.1002/pfi.4170350906>
- Greenhaus, J. H., Callanan, G. A., & Godshalk, V. M. (2010). *Career management* (4th eds.). Sage.
- Grzeda, M., & Prince, J. B. (1997). Career motivation measures: A test of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8(2), 172-196. <http://doi.org/10.1080/09585199700000047>
- Ha, S. Y. (2018). The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social support on career adaptability mediated by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in Korean college students. *Global Creative Leader: Education & Learning*, 8(1), 97-119. <http://doi.org/10.34226/gcl.2018.8.1.97> 국문: 하선영(2018). 우리나라 대학생의 정서지능과 사회적지지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커리어 적응성에 미치는 영향. **Global Creative Leader: Education & Learning**, 8(1), 97-119.
- Hackett, G., & Betz, N. E. (1981). A self-efficacy approach to the career development of wo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8(3), 326-339. [http://doi.org/10.1016/0001-8791\(81\)90019-1](http://doi.org/10.1016/0001-8791(81)90019-1)
- Hair, J. F., Black, W. C., Babin, B., & Anderson, R. E. (2018). *Multivariate data analysis* (8th eds.). Cengage Learning.
- Hong, M. A., & You, J. A. (2020). The effects of career barriers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on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female college students in physical education and sports.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Physical Education and Sport for Girls and Women*, 34(1), 135-147. <http://doi.org/10.16915/jkapesgw.2020.3.34.1.135> 국문: 홍민아, 유정애(2020). 체육

- 계열 여대생의 진로장벽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여성체육학회지**, 34(1), 135-147.
- Im, S. H., & Lee, Y. G. (2020). Meta-analysis on antecedence and consequence variables of career resilience.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33(1), 131-157. <http://doi.org/10.32341/JCER.2020.03.33.1.131> 국문: 임소현, 이영광(2020). 진로탄력성의 선행 및 결과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진로교육연구**, 33(1), 131-157.
- Jang, Y. S., & Song, B. K. (2015). The relations between career barrier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perceived by college students: The mediation effect of resilienc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2(7), 363-392. 국문: 장이슬, 송병국(2015). 대학생의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검증. **청소년학연구**, 22(7), 363-392.
- Jeon, Y. H., & Lee, W. I. (2020) The influence of anxiety about retirement of university baseball players 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Asi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of Sport Science*, 8(2), 127-140. <http://doi.org/10.24007/ajpess.2020.8.2.011> 국문: 전영환, 이원일(2020). 대학 야구선수의 은퇴 불안이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 진로 태도 성숙에 미치는 영향. **Asi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of Sport Science**, 8(2), 127-140.
- Jeong, J. E., & Jyung, C. Y. (2015). The causal relationship of undergraduate students' career adaptability, social support, self-esteem and self-directed learning. *Journal of Agricultural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47(1), 79-96. <http://doi.org/10.23840/agehrd.2015.47.1.79> 국문: 정지은, 정철영(2015). 대학생의 진로적응성과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및 자기주도학습의 인과적 관계.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7(1), 79-96.
- Jin, B. J., & Chung, H. W. (2021). The effect of career barrier,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elf-esteem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1(4), 295-317. <http://doi.org/10.22251/jlcci.2021.21.4.295> 국문: 진병주, 정혜원(2021). 대학생의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이 진로준비행동의 구조적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4), 295-317.
- Jung, K. S., & Ha, J. H. (2018). The effect of college students' career barriers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e mediating effect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Korea Youth Research Association*, 25(11), 437-455. <http://doi.org/10.21509/KJYS.2018.11.25.11.437> 국문: 정기수, 하정희(2018). 대학생의 진로장벽인식이

-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5(11), 437-455.
- Kang, S. W. (2015). A study on differences of career barriers, employment stress, and career development behavior among collegiate athletes, sport-majored college students, and non-sport-majored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54(1), 83-95. doi 없음. ㉮ 국문: 강신욱(2015). 대학운동선수, 체육계열 대학생, 일반 계열 대학생의 진로장벽, 취업스트레스, 진로준비행동의 차이. *한국체육학회지*, 54(1), 83-95.
- Kang, J. W., & Kim, Y. R. (2013). A study on policy direction for elite athletes' career support in Korea through the Australian athlete career and education program review. *The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Physical Education*, 18(1), 263-284. ㉮ 국문: 강재원, 김양례(2013). 호주 운동선수 진로전환, 진로교육 프로그램 분석을 통한 국내 운동선수 진로지원 방안. *한국체육교육학회지*, 18(1), 263-284.
- Kim, D. H., & Chang, D. S. (2019).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retirement anxiety in university athletes. *Sport Science*, 36(2), 105-115. <http://doi.org/10.46394/ISS.36.2.9> ㉮ 국문: 김동현, 장덕선(2019). 대학선수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은퇴불안의 관계. *스포츠사이언스*, 36(2), 105-115.
- Kim, E. S., Kim, J. P., & Lee, J. C. (2018).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career barrier, major satisfacti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drama & theatre majors in credit bank system.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31(1), 131-151. <http://doi.org/10.32341/JCER.2018.03.31.1.131> ㉮ 국문: 학점은행제 연극전공자의 진로장벽 전공만족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 *진로교육연구*, 31(1), 131-151.
- Kim, E. Y. (2001). *A study for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Korean college students' career barrier inventor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 국문: 김은영(2001). **한국 대학생 진로탐색장애사건(KCBD)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Kim, H. S. (2020).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resilience in relationship of career barrier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1(12), 291-299. <http://doi.org/10.5762/KAIS.2020.21.12.291> ㉮ 국문: 김현순(2020). 대학생의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탄력성의 매개효과.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1(12), 291-299.

- Kim, J. U., & Park, S. S. (2013). The mediating effect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barrier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6(3), 123-141. ☞ 국문: 김종운, 박성실(2013). 전문대학생의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진로교육연구*, 26(3), 123-141.
- Kim, K. W. (2014). Policy suggestions for athlete's career development and transition: A case of German support program for athlete's dual career. *The Asian Journal of Kinesiology*, 16(4), 101-113. <http://doi.org/10.15758/jKaK.2014.16.4.101> ☞ 국문: 김경원(2014). 운동선수의 경력개발과 진로전환을 위한 정책 방안: 독일의 이중 경력 지원제도를 중심으로. *아시아운동학학술지*, 16(4), 101-113.
- Kim, N. Y., Kim, M. J., & Park, M. H. (2020). The effects of psychological and environmental career barriers perceived by undergraduates on career decision levels: Mediating effects of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Journal of Holistic Convergence Education*, 24(4), 31-50. <http://doi.org/10.35184/kshce.2020.24.4.31> ☞ 국문: 김나연, 김민정, 박미화(2020). 대학생이 지각한 심리적, 환경적 진로장벽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홀리스틱융합교육연구*, 24(4), 31-50.
- Kim, M. J. (2016). Effect of career barrier on college students'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self-regulation.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9(2), 89-107. ☞ 국문: 김민정(2016). 대학생의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자기조절의 매개효과. *진로교육연구*, 29(2), 89-107.
- Kim, M. K. (2014). *The development of the career resilience scale for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국문: 김미경 (2014). *전문대학생 진로탄력성 척도개발*. 박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 Kim, M. S., & Kim, O. J. (2018). The effect of parents' support of middle and high school taekwondo players on commitment of exercise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The Korean Journal of Sport*, 16(3), 539-550. ☞ 국문: 김만수, 김옥자(2018). 중·고등학교 태권도선수들의 부모지원이 운동몰입,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학회지*, 16(3), 539-550.
- Kim, S. D., & Choi, Y. J. (2020). Effects of career plateau of university athletes on athlete stress, exercise immersion, and career transition intention.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Sport Policy*, 18(3), 77-91. <http://doi.org/10.52427/KSSP.18.3.6> ☞

- 국문: 김성덕, 최영준(2020). 대학 운동선수의 경력정체지각이 선수스트레스 및 운동 몰입과 진로변경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정책학회지**, 18(3), 77-91.
- Kim, S. H. (2007).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career barriers and objective/environmental career conditions in university students' career barrier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9(4), 1057-1078. ☞ 국문: 김수현(2007). 대학생의 진로장애에서 심리적 진로장애와 객관적/환경적 진로여건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4), 1057-1078.
- Kim, T. S., & Lee, K. H. (2012).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in the relation between narcissism and career decision level in college students. *Asian Journal of Education*, 13(4), 123-141. <http://doi.org/10.15753/aje.2012.13.4.006> ☞ 국문: 김태석, 이기학(2012). 대학생의 자기에 성향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아시아교육연구**, 13(4), 123-141.
- Kline, R. B. (2010).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3rd eds.). Guilford Publications.
- Lee, E. J. (2001). *Effects of career-planning group counseling for multipotential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 국문: 이은진(2001). **다재다능한 대학생을 위한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Lee, E. W., & Choi, B. O. (2020). The effects of psychological and environmental career barriers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engineering majors undergraduates: hope and career identity as mediating variable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33(1), 109-129. <http://doi.org/10.32341/JCER.2020.03.33.1.109> ☞ 국문: 이건우, 최바울(2020). 공학계열 대학생의 심리적·환경적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희망과 진로정체감의 매개효과. **진로교육연구**, 33(1), 109-129.
- Lee, H. J. (2000). The differences in cognitive styles according to career decision levels of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33(1), 235-257. ☞ 국문: 이현주(2000).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에 따른 인지양식 차이. **교육학연구**, 38(1), 235-257.
- Lee, J. G. (2009). Effect of the career barriers and occupational values to the career self-efficacy of the students of agriculture specialized high school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2(1), 127-143. ☞ 국문: 이정금(2009). 농업계열 고등학생의 진로장벽, 직업가치관이 진로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22(1), 127-143.

- Lee, J. H., & Lee, M. S. (2017). The influence of track & field professional athletes' career anxiety on exercise flow and perceived performance. *Journal of Sport and Leisure Studies*, (70), 371-381. ☞ 국문: 이정훈, 이명선(2017). 실업팀 육상선수들의 진로불안이 운동 몰입과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체육학회지*, (70), 371-381.
- Lee, J. Y. (2019). The effects of university students' career stress and career barriers on their career preparation behavior: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career resilience. *Counseling Psychology Education Welfare*, 6(4), 107-120. <http://doi.org/10.20496/cpew.2019.6.4.107> ☞ 국문: 이주연(2019). 대학생이 지각하는 진로스트레스,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상담심리교육복지*, 6(4), 107-120.
- Lee, S. B., & Cho, M. H. (2012). A study on social adaptation of judo athletes post retirement. *Journal of Sport Science*, 24, 89-105. ☞ 국문: 이석배, 조미혜(2012). 유도선수의 은퇴 후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스포츠과학논문집*, 24, 89-105.
- Lee, S. H. (2006). The role of career barriers and social support in career development: A test of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SCCT) and social cognitive theory.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7(4), 1123-1135. ☞ 국문: 이상희(2006). 진로발달에서 진로장벽과 사회적지지의 역할: 사회인지 진로이론(SCCT)과 사회인지이론의 검증. *상담학연구*, 7(4), 1123-1135.
- Lee, S. H. (2017). The effects of psychological career barriers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career resilience of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7(19), 23-44. <http://doi.org/10.22251/jlcci.2017.17.19.23> ☞ 국문: 이순희(2017). 대학생의 심리적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과 진로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19), 23-44.
- Lee, S. M., & Park, K. S. (2019).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decision-making autonomy, parent career behavior and high school students' career decision level.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6(9), 269-297. <http://doi.org/10.21509/KJYS.2019.09.26.9.269> ☞ 국문: 이상무, 박관성(2019).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자율성, 부모진로행동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6(9), 269-297.
- Lee, S. S., & Jyung, C. Y. (2007). A casual model among perceived career barriers,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 level of female college

- students. *Journal of Agricultural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39(4), 83-109. <http://doi.org/10.23840/agehrd.2007.39.4.83> ☞ 국문: 이성식, 정철영 (2007). 여대생이 인식한 진로장벽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결정수준의 인과모형.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39(4), 83-109.
- Lent, R. W., Brown, S. D., & Hackett, G. (1994). Toward a unifying social cognitive theory of career and academic interest, choice, and performa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5(1), 79-122. <http://doi.org/10.1006/jvbe.1994.1027>
- Lent, R. W., Brown, S. D., & Hackett, G. (2000). Contextual supports and barriers to career choice: A social cognitive 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1), 36-49. <http://doi.org/10.1037/0022-0167.47.1.36>
- Lim, B. M. (2020).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barrier and satisfaction of major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perceived by the dance college stud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 국문: 임보미(2020). **무용 전공대학생이 지각하는 진로장벽과 전공만족도 및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석사학위 논문, 단국대학교.
- Lim, E. (2004). Youth unemployment and new perspectives on career education.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17(2), 144-156. ☞ 국문: 임연(2004). 청년 실업에 대비한 진로교육의 방향. *진로교육연구*, 17(2), 144-156.
- Lim, E. M., Song, M. S., & Lee, S. J. (2011). The relationship among career identity,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major transition preparation of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4(4), 1-20. ☞ 국문: 임은미, 송미숙, 이수진(2011). 대학생의 진로정체감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전공전환 준비도의 관계. *진로교육연구*, 24(4), 1-20.
- Lim, J. Y., & Yoon, G. J. (2013). The effects of ego-resilience, school satisfaction and achievement motivation 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i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Family Relations*, 18(3), 113-130. ☞ 국문: 임주영, 윤경자 (2013). 대학생의 자아탄력성, 대학생생활만족도 및 성취동기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8(3), 113-130.
- London, M. (1983). Toward a theory of career motiva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8(4), 620-630. <https://doi.org/10.2307/258263>
- London, M. (1993). Relationships between career motivation, empowerment and support for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Occupation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66(1), 55-69. <https://doi.org/10.1111/j.2044-8325.1993.tb00516.x>

- London, M. (1997). Overcoming career barriers: A model of cognitive and emotional processes for realistic appraisal and constructive coping.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24*(1), 25-38. <http://doi.org/10.1023/A:1025082420866>
- London, M., & Mone, E. M. (1987). *Career management and survival in the workplace*. Jossey-Bass.
- London, M., & Noe, R. A. (1997). London's career motivation theory: An update on measurement and research.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5*(1), 61-80. <http://doi.org/10.1177/106907279700500105>
- Luzzo, D. A. (1997 August). Correlates of Mexican American college students perceptions of career related barriers. [Paper presented]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Chicago, IL.
- Martin, L. A., Fogarty, G. J., & Albion, M. J. (2014). Changes in athletic identity and life satisfaction of elite athletes as a function of retirement status. *Journal of Applied Sport Psychology, 26*(1), 96-110. <http://doi.org/10.1080/10413200.2013.798371>
- Roni, S. M. (2014). *Introduction to SPSS*. SOAR Centre.
- Murphy, K. R., & Davidshofer, C. O. (1988). *Psychological testing: Principles and applications*. Prentice Hall.
- Nam, K. W., Kwon, Y. W., & Yang, S. H. (2016). The relationship among work values,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sense maturity of university judo athletes. *The Korean Journal Physical Education, 55*(4), 33-43. ☞ 국문: 남광우, 권영우, 양상훈(2016). 대학 유도선수의 직업가치관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 의식 성숙도의 관계. **한국체육학회지, 55**(4), 33-43.
- Nam, S. K., Chang, D. S., & Yoon. J. R. (2012). Support plan on retirement athlete's society advancement. *The Korean Journal of Sport, 10*(2), 71-87. ☞ 국문: 남승구, 장덕선, 윤재량(2012). 은퇴선수 사회진출 지원 방안. **한국스포츠학회지, 10**(2), 71-87.
- Noe, R. A., Noe, A. W., & Bachhuber, J. A. (1990). An investigation of the correlates of career motivat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7*(3), 340-356. [http://doi.org/10.1016/0001-8791\(90\)90049-8](http://doi.org/10.1016/0001-8791(90)90049-8)
- Park, G. W., & Lee, K. H. (2007).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autonomy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mediated by career self-efficacy.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9*(2), 409-422. ☞ 국문: 박고운, 이기학 (2007). 진로결정 자율성 수준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에서 진로자기효능감의 매

- 개효과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2), 409-422.
- Park, S. R. (2018). *The structural relations among satisfaction in major, career resilience, social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eimyung University. ☞ 국문: 박상란(2018). **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진로탄력성,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 박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 Park, S., Lavalley, D., & Tod, D. (2013). Athletes' career transition out of sport: A systematic review. *International Review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6(1), 22-53. <http://doi.org/10.1080/1750984x.2012.687053>
- Park, W. S., & Kim. M. S. (2019). The effects of planned happenstance and career belief on career resilience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9(24), 189-211. <http://doi.org/10.22251/jlcci.2019.19.24.189> ☞ 국문: 박완성, 김미숙(2019). **대학생의 계획된 우연과 진로신념이 진로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24), 189-211.
- Park, J. W., & Han, S. H. (2011). A comparative study of elite athlete career development and career transition support program in the United States, Australia and United kingdom: Drawing policy suggestions and alternatives. *Korean Journal of Sport Science*, 22(1), 1739-1754. <http://doi.org/10.24985/kjss.2011.22.1.1739> ☞ 국문: 박재우, 한상호(2011). **미국, 호주, 영국의 엘리트운동선수들을 위한 경력개발 및 진로전환 지원프로그램 비교연구**. **체육과학연구**, 22(1), 1739-1754.
- Park, J. A., & Jyung, C. Y. (2012). The relationship among career resilience, job stressors, self-esteem,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in the organization of office workers in large corporation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5(2), 59-80. ☞ 국문: 박정아, 정철영(2012).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경력탄력성과 직무스트레스원,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및 조직 내 사회적 지지의 관계**. **진로교육연구**, 25(2), 59-80.
- Park, J. H., & Yoo, S. K. (2012). Exploring the mediating effect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work hop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alling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among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3(2), 543-560. <http://doi.org/10.15703/kjc.13.2.201204.543> ☞ 국문: 박주현, 유성경(2012). **대학생의 소명과 진로태도성숙과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일희망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3(2), 543-560.

- Pearson, R. E., & Petitpas, A. J. (1990). Transitions of athletes: Developmental and preventive perspectives.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68*(1), 7-10. <http://doi.org/10.1002/j.1556-6676.1990.tb01445.x>
- Seo, H. J., & Lee, J. Y. (2021). The relationships among grit, career barrier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perceived by college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1*(4), 1259-1284. <http://doi.org/10.22251/jlcci.2021.21.4.1259> ☞ 국문: 서혜진, 이종연(2021). 대학생의 그릿과 진로장벽 및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4), 1259-1284.
- Shin, Y. J. (2013). Exploration of the relationship among calling,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intrinsic motivation, and career adaptability.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4*(1), 209-226. <http://doi.org/10.15703/kjc.14.1.201302.209> ☞ 국문: 신윤정(2013). 대학생의 진로소명, 진로자기효능감 및 내적동기와 진로적응성의 관계. *상담학연구, 14*(1), 209-226.
- Song, B. K., & Jeon, J. Y. (2013). A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barrier and career maturity of the adolescents. *Journal of Agricultural Extension & Community Development, 20*(1), 235-264. <http://doi.org/10.0000/jecd/2013.20.1.0235> ☞ 국문: 송병국, 전주연(2013). 청소년의 진로장벽과 진로성숙도간의 관계분석, *한국농촌지도학회지, 20*(1), 235-264.
- Swanson, J. L., & Tokar, D. M. (1991a).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of the career barriers inventor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9*(3), 344-361. [http://doi.org/10.1016/0001-8791\(91\)90043-L](http://doi.org/10.1016/0001-8791(91)90043-L)
- Swanson, J. L., & Tokar, D. M. (1991b). College students' perceptions of barriers to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8*(1), 92-106. [http://doi.org/10.1016/0001-8791\(91\)90020-M](http://doi.org/10.1016/0001-8791(91)90020-M)
- Swanson, J. L., & Woitke, M. B. (1997). Theory into practice in career assessment for women: Assessment and interventions regarding perceived career barrier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5*(4), 443-462. <http://doi.org/10.1177/106907279700500405>
- Taylor, K. M., & Betz, N. E. (1983). Applications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2*(1), 63-81. [http://doi.org/10.1016/0001-8791\(83\)90006-4](http://doi.org/10.1016/0001-8791(83)90006-4)
- Yoon. J. H., & Choi. J. Y. (2020). Effect analysi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barrier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e Korean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27(2), 119-139. <http://doi.org/10.15284/kjhd.2020.27.2.119> 국문: 윤준현, 최지영(2020). 대학생의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태도성숙의 효과분석. *인간발달연구*, 27(2), 119-139.